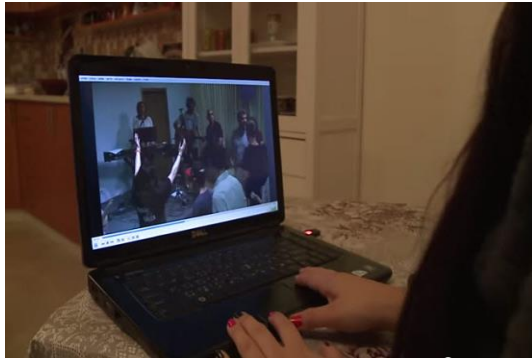


에스더 금식



3 월 4 일에 12 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와 기도, 금식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의 때에 에스더 여왕이 했던 것과 같이 주님을 구하기 위해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 행사는 **예루살렘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특히 올해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현대의 페르시아)의 핵무기 위협과 전 세계적인 지하드 테러의 자금에 관하여 미국에서 연설하는 때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에 선거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와의 유사성이 현저합니다. 지금도 그 때처럼 중보의 필요가 시급합니다.

중요

실시간 동영상을 보시려면, 당일에 reviveisrael.org 로 들어오십시오.

초청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고난이 생명을 낳는 다섯 가지 방법



-론 칸토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빌 3:10**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옥에서 나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의 첫 부분까지 읽고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누구도 먼저 죽지 않고 부활하는 법은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음으로 이 죽음을 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의 다섯 가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친밀함을 가져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예수아와의 친밀함의 차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를 아는 것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동일시 하였습니다.

예수아께서 그 분과 함께 고난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몇 해 전에 제가 특별히 고통스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제 사역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많은 이들도 그렇게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아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네가 나와 함께 죽기를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음성에 '예'라고 답했을 때, 곧 평안이 제 영혼으로 들어왔고, 그 분께서 저를 입증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몇 달 안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지키려 했다면, 주님의 간섭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성숙을 가져온다.

신학교에 다닐 때, 젊은 '예언자'가 와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8 세였고 분명히 기름부으심이 있었지만, 저희 담당자는 지혜를 얻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예언자가 동성애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10 대 때 예언적인 은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기에는 미성숙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그는 결국 노예가 되었고 또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결국 그 부르심에 맞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단기간에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고난이 크다.

다윗 왕은 소년의 때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나서 곧 왕이 될 것 같이 일이 진행됩니다. 그는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기도 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장군이 되기도 합니다. 합법적 상속자였던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될거라는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몇 십년이 넘도록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치며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장하였고 곧 왕이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온다.

바울은 고전 4:10-12 에서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음을 끌어안을 때, 우리가 듣는 자들 안에 생명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견뎠던 모든 고난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기름부으심을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에 혁명이 있고 얼마 안 되었던 때에 일 년 정도 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저희는 아파트에 특실대는 벼룩과 싸워야 했고, 매일 밤 마루로 까지 뿜어져 나오는 하수와 마피아들의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후에 그 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재미있는 경험은 아니지만, 고난 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모든 것에 합당하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서로 복종함

-아세르 인트레이터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한 아름답고도 날카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되, 영원히 벌하시기에 그분을 경외합니다 (**눅 12:5**).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룹니다 (**시 19:9**).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적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행 2:43; 5:11-12**).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눅 12:4**).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잠 8:13**).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우리는 그 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계 15:4**).

이 모든 것은 듣기 좋고 매우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엠펙 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함은 우리 가운데 서로 복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저는 교만하거나 반역적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다른 이들의 분별이나 교정을 듣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른 이들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복종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서로 간에 복종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간에 복종함이 없다면, 주님을 경외함 역시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것



아세르는 예루살렘의 아하발 예슈아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